

# 회관 완공계기 2년간 비구니結社

## 전국 비구니회 동참 비구니 모집 ... "수행력 있는 차세대 지도자 양성"

### 포교·복지·문화사업 담당 여성봉사자도

비구니 스님들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전국비구니회관의 완공에 발맞춰, 서울 강남 도심에서 수행과 교육에 전념하는 '비구니 결사(結社)'가 시작된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스님)는 비구니회관에 상주하며 2년간 결사에 들어갈 40~55세의 비구니 20여명을 오는 9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 비구니 승단이 비구니회관 완공과 2004년 사키야타 국제불교여성대회에 계기로 여성불교의 발전을 다짐하고 나섰다. 사진은 5월 4일 거행된 비구니회관 봉납식.

광우스님은 "비구니회관을 거점으로 비구니 스님들이 지금까지 종단내에서 역량을 발휘했던 것 이상으로 교육, 포교, 복지, 문화사업이 새로운 역할을 창출해 낼 것"이라며 "종단 발전과 불교 흥부의 사명감과 능력과 서

원을 가진 참신한 스님을 찾는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선발된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니회관의 상주대중으로서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문화, 기도, 국제포교 등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참선, 분

도 등의 실참과 선어록 및 어학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비구니회의 이번 결사는 비구니회관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완공된 만큼, 비구니계의 단합된 흐름을 모아 회관을 원만히 운영하고 수행력있는 차세대 비구니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국제불교여성대회와 함께 전국비구니회가 개최하는 2004년 서울 사키야타 국제불교여성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실무능력을 갖추는 부수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사는 여성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여성 불자들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의미도 갖는다. 20여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포교, 복지, 문화사업에 나설 60~80명의 여성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여성불교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본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여성불교가 제 역할을 하기 위

해서는 출세가 여성들이 하나가 돼 수행과 교육에 매진해야 한다"며, "비구니회관의 문화 및 복지 포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2004년 사키야타 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여성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속화된 기복, 미신 불교를 타파하고 타락한 형식불교를 혁명하며 정법, 수행불교를 주창했던 보조지눌 스님의 정혜결사(定慧結社) 정신을 이어 '비구니 결사'가 이 시대의 새로운 불교혁신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구니 결사에 동참할 스님들은 12~17일까지 수행이력서 1부이력, 경력, 수행이력 기재를 제출하고, 1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면접을 받으면 된다. 2차 모집은 9월 9~14일. (02)733-5467

김재경 기자 igkm@buddhapia.com

# "기아문제 인도적으로 풀어야"

막사이사이상(평화·국제 이해부문) 수상 법륜 스님



"이 상은 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남북화해와 인도적 지원을 한 모든 민간단체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륜 스님 "좋은 벗들" 이사장·사진은 "출가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담당 수상 소감을 밝혔다.

스님의 대북지원은 1996년 여

에 난민 구호를 호소했다.

"현재 중국에는 북한으로 돌아가지도 중국에 머물지도 못하는 탈북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중국과 유엔이 현실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간단체의 지원만으로는 구조적인 해결이 어려워요."

스님은 최근 서해교전과 관련 남북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대해 안타까운 감정도 감추지 못했다. "먼저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공감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 북한이 도발한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아 문제는 인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스님은 인도 국제 워크캠프 태국 국경지역의 미얀마 난민을 구

## 중국 체류 탈북자 인권사각지대에 남북한·中·UN 현실적 해법 강구를

를 북한과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호 몽골 한과 지역의 구호 이디서 기아상태에 있는 북한 어린 이들은 직접 보면서 시작됐다.

"당시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직접 가 볼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웠던 것은 그때 백만톤의 쌀이 지원됐더라면 수많은 인명이 아사하는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후 스님은 (사)좋은 벗들 회원들과 함께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동북지방에서 식량을 구하려 국경을 넘어온 수많은 북한민을 도왔다. '북한식량난 실태조사보고서'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알려 대북인도적 지원의 확대를 호소했고, '북한난민실태 및 인권조사보고서'를 만들어 국제사회

호 몽골 한과 지역의 구호 이디서 기아상태에 있는 북한 어린 이들은 직접 보면서 시작됐다.

"당시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직접 가 볼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웠던 것은 그때 백만톤의 쌀이 지원됐더라면 수많은 인명이 아사하는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후 스님은 (사)좋은 벗들 회원들과 함께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동북지방에서 식량을 구하려 국경을 넘어온 수많은 북한민을 도왔다. '북한식량난 실태조사보고서'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알려 대북인도적 지원의 확대를 호소했고, '북한난민실태 및 인권조사보고서'를 만들어 국제사회

막사이사이상 이란

## '공공' 등 6개 부문...8월 31일 시상식

1957년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막사이사이 필리핀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막사이사이상은 아시아인 중 정파나 이해 관계를 떠나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수여된다. 상은 공공봉사 부문, 국제 화합 부문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 상장과 메달, 5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과 함께 전달된다. 수상식은 매년 막사이사이 전 대통령의 생일인 8월 31일 마닐라에서 개최된다.

#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비용 우회로보다 1조 34억 더 든다"

### 한국생태경제연구, 등산·공기정화 등 사용·보존가치 훨씬 커



북한산 우회도로가 관통도로보다 공사비용이 7천억원이 더 든다는 시공자측 주장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다. 관통도로가 우회로보다 사회·환경적 비용이 1조 34억 원 정도 더 든다는 것이다.

한국생태경제연구회(회장 조승현 박사·사진)가 7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구간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우회노선에 대해 환경가치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북한산 관통도로가 우회로보다 1조 34억 더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산 사용가치(등산과 공기정화 등 산의 이용가치) 3601억원에다 보존가치(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보존됨에 따른 간접적인 가치) 1조 2444억원을 합한 것에 우회도로 추가공사비 6011억을 뺀 금액이다.

연구회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가상적인 시장을 설정한 뒤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교환가치를 설문)에 의

해 도출한 다음 화폐가치로 나타낸 것을 이용, 1999년을 기준으로 북한산 보존가치는 1인당 1년에 16,198원, 사용가치는 11,439원을 토대로 이를 2002년 가치로 환산한 뒤, 20년 동안 인구 증가율, 경제성장률, 북한산 입장객 수, 조정계수를 곱해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또한 우회도로가 관통도로에 비해 식생과 파괴면적이 1.8배 크다는 주장에 대해 "우회도로 건설에 따라 소실되는 야산과 파괴 면적과 관통도로 건설에 따라 소실되는 터널 내 면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관통도로에 따른 환경피해가 과소 추정되었으며, 수락산과 불암산의 환경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에 따른 추가 사회적 비용 또한 최소값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회도로를 건설할 경우 비용이 이중으로 든다는 지적에 대해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교계와 지역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북한산·수락산·불암산 구간은 아직 공사 진행이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대안노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생태경제연구회(www.ksee.re.kr)는 30여명의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결정한 비영리 사설연구단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a.com

조계종 승가교육의 중책을 맡고 있는 스님들이 강원 등 후학들과 불자들에게 경전과 불교서적을 무료로 보시하는 모임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문수법공양회'라는 이름의 이 모임은 지난 5월 교육원장 무비스

문수법공양회는 지금까지 전국 강원엔 무비스님이 현토(懸吐)한 네 권짜리 <화엄경> 80권 책을 무료로 보시하는 모임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경전을 비롯해 불교 입문서 및 학술서 등도 강원과 일반불자들에게 보시할 계획이다. 경전보시에 필요한 재원은

## 교역자 스님들 '문수법공양회' 결성

### 후학들에게 경전·불교서적 무료 보시

님이 "후학들을 위해 뜻있는 일을 하자"고 제의하고, 무관(계단위 원 해남통도사 강주) 지오(해인사 강주 해남(해인사) 윤원장) 지현(송광사 윤원장) 능허(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스님 등이 흔쾌히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구제화됐다.

전액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이 모임은 현재 준비단계에 있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7명 외에 회원이 더 늘어나 구체적인 사업을 펼 수 있을 때 결성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mvfhan@buddhapa.com

인생을 바꾸는 아ват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오!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임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오

해산아ват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ват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 2002년 제 2회 일연 삼국유사 문화제



제 목	사업 내용	일 시	장 소
일연상사 다례제	1. 다례제 육법공양 - 일연상사 승모회 2. 추모의 노래 - 은혜사 합창단	2002년 8월 16일 (11:00) [음력 7월 8일]	군위군 고로면 인각사 경내
일연학 학술 세미나	1. 인연 삼국유사 학술세미나 2. 연구논문집 발행	2002년 8월 14일 (13:00 ~ 17:00)	군위군청 대강당
청소년 백일장	1. 백일장 개최 (시, 산문) - 전국초·중·고등학생	2002년 7월 14일 (11:00 ~ 16:00) 시상 - 2002년 8월 16일 (11:00)	군위군 고로면 인각사 경내
시 낭송회	1. 시 낭송회 (낭송 시인 명단 추후 선정) 2. 국악공연 및 사물놀이 (오상고등학교 특별공연 외)	2002년 8월 15일 (14:00) 일연찬가 시비 제막식	군위군 고로면 인각사 경내

- 주 최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10교구본사 은해사 ■ 주 관 : 인각사·일연학연구원
- 협 찬 : 한국토지공사·KT(한국통신)·대한주택공사·(주)대동에너지·(주)엠시엠텍·(주)한세키토랜드·(주)아이에스유코
- 후 원 : 문화관광부·국무총리실 청소년 보호위원회·경상북도·경상북도교육청·군위군 대구KBS·대구MBC·영남일보·대구불교방송·청백다례원·갯바위·선본사·(주)화진
- 문 의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

TEL 054)383-1161 / Fax 054)383-3758 / www.ingaksa.org